

霜月禪院 乙亥年 冬安居 宗正猊下 法語

[주장자(拄杖子)를 들어 대중(大衆)에게 보이시고]

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현전(現前)하고  
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없음이라.

마음은 만 가지 진리법의 주인이다.

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(萬法)에 임의자재(任意自在) 할 수 있지만,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온갖 무명업식으로 인해 번뇌가 쉴 날이 없다.

중생들은 무한한 전생의 습기가 태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일체처(一切處) 일체시(一切時)에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이라.  
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용맹정진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혀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 데 있는 것이다.

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(杜門不出)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(大悟見性)하기 위함이라.

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다.

필경에 진리의 일구는 어떻게 생각하는고?

무운생령상(無雲生嶺上)하고

유월낙파심(唯月落波心)이로다.

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

밝은 달은 물위에 떠 있음이로다.

[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고 하좌하시다]